

거물급 변호사 등에 업은 권도형, 美 100년형 피했다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확정...23-24일 한국 올 듯 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인도 뒤집고 한국 송환 최종 결정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사진)씨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씨 측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

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는 이달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씨 측은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이 결정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애초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무원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했다.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지난 7일 권씨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고등검찰청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한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국가 검사의 항소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권씨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행정 절차만 남았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권씨 측은 법원에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강력 요구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일본 혼슈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무쓰레섬 앞바다에서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한국 선적의 운반선이 전복돼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日서 韓선적 선박 전복...선원 8명 사망, 2명 실종

한국인 2명중 1명 사망, 1명 실종

지난 20일 일본 시모노세키시 앞바다에서 한국 선적 선박이 전복돼 한국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한국 외교당국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무쓰레섬 앞바다에서 전복된 한국 선적 화학제품 수송선 선원 11명 가운데 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전복된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 등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 등 총 11명이 타고 있었다.

해당 수송선은 오전 7시께 해상보안청에 “배가 기울고 있다”는 내용의 구조 요청을 보냈고 오전 8시께 전복됐다.

구조 요청을 받은 해상보안청은 헬기와 순시선을 동원해 11명 가운데 9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중 한국인 1명 등 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

인 1명을 포함해 실종된 2명은 계속 수색 중이다.

구조된 인도네시아인 1명은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구에 있는 사고 선박의 선사는 이 배에 탑승한 한국인 2명이 60대 후반의 선장과 기관장이라고 밝혔다.

선사 측은 선원 구조 상황과 사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 1명을 일본에 급파하고, 가족에게 연락했다. /연합뉴스

‘기획된 굶주림’...이스라엘 전쟁범죄 의혹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 중인 가자지구에 고의적으로 굶주림을 불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자지구 전역의 주민들은 긴 전쟁과 봉쇄로 인해 사실상 인구 전체가 극

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유엔은 이달 중순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가자지구 주민 절반이 넘는 약 110만7천명이 영양적 굶주림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내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200만명이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구호품 반입을 막아 기아를 의도적으로 초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전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공습이나 특정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분쟁 필요성이나 공격 비례성 등을 따져 전쟁범죄 여부를 판단하게 돼있는 반면 기아에 대한 전쟁범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폭염 속 브라질 대학생들 비키니 시위 “에어컨 설치해 달라”

브라질 중남부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섭씨 62.3°C까지 치솟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파울루 대학생들이 열악한 학습 인프라에 저항해 비키니 시위를 벌였다.

브라질 언론 G1에 따르면 상파울루 가톨릭대학의 학생들은 20일(현지시간) 극심한 더위를 감당해 낼 인프라 부족과 열악함에 항의하는 의미로 캠퍼스 내에서 비키니를 입고 시위했다.

심리학과 1학년생인 마리아씨는 인터뷰에서 “견딜 수 없이 덥다. 가톨릭대학은 훌륭한 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을 견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 에어컨이 있는 교실이 거의 없

다. 이것이 바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이유”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상파울루는 열대 현상으로 역사상 세 번째로 더운 여름을 기록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비키니 시위가

캠퍼스 전용 데이트 온라인 페이지 ‘스포티드’를 통해 시작됐다는 점이다.

상파울루 가톨릭대학 학생들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대학 내 개찰구 설치, 경비원 채용, 에어컨 부족 등과 같은 학생 생활 문제와 관련된 요구 시위가 이 데이트 페이지를 통해 지속해서 진행됐다. /연합뉴스



60 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패